

보도설명자료 (‘22. 10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영구 방폐장이 아닌 한시적인 저장 시설이며,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됨

(10.26일자 아시아경제 「‘임시’의 탈을 쓴 영구방폐장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사실상 ‘임시’의 탈을 쓴 영구방폐장임
- 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지상에 구축되는 임시시설로서 저장방식이 안전하지 못하고, 지진·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방폐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
 - ① 건식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,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시설물로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님
 - ②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은 땅속 500~1,000m 깊이에 건설하여 고준위 방폐물을 인간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개념으로서, 원전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식저장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

- ☐ 건식저장 기술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중인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로서, 저장방식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음

* 전 세계 33개 원전운영국 중 22개국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·운영중(’20)

- 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규모 7.0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건설예정임
- ② ‘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후쿠시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안전성을 유지한 바 있음

* 미국 과학한림원 보고서(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or Improving Safety and Security of U.S. Nuclear Plants, 2016)

- ☐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R&D 기술 로드맵을 통해 104개 핵심 관리기술을 확보해나갈 예정임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박태현 과장(044-203-5340)/변재택 사무관(5341)